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생각해라!**

여러분은 1년 반 전에 했던 용서에 관한 이 두가지 간단한 생각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신학교 교수가 우리에게 남편과 간통을 저지른 여자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상담을 받으러 갔고, 자신의 이야기와 고통을 나누었지만, 의사가 그녀에게 사랑스럽게 “영원히 화를 낼건가요?”라고 물었을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 되었습니다.

- 둘째, 한 신부는 용서를 거부할 때마다 우리를 해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든 간에, 우리가 용서를 거부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해칩니다(<http://thejustmeasure.ca/2019/02/24/how-to-forgive-our-enemies/>).

집회서에서 인용된 제 1 독서는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지은 사람은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27:30).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치유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치유할 수 있는 태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가 제시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왕에게 엄청난 액수를 빚지고 결코 갚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왕은 그를 용서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은 동료 노예를 조금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예수님의 교훈은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나는 예민한 사람이고, 나는 용서하기 힘든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야기하는 거의 모든 고통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가장 큰 죄를 기억할 때마다, 이것은 내게 사람들의 죄를 대적할 수 있는 적절한 관점을 줍니다!

- 나는 내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나는 개종 후 10대 때 했던 어리석고, 내가 했던 죄 많은 일들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더 잘 알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학교에 있을 때 했던 죄악에 대해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사제 시절의 죄악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는 이 죄들을 영적인 연습으로 적었는데, 그것은 극도로 당황스러웠습니다.
 - 이제, 내가 나에게 지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생각할 때, 나의 죄를 생각하면 나의 관점이 크게 변합니다. 나는 항상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계속 그런 짓을 하는 거지? 그들은 더 잘 알고 있어.” 이제 나는 그들이 나처럼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처럼 계속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니다.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객관적으로 더 해롭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지만, 우리는 바람 피운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완벽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하지만 가능한한 용서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 네가지 진실을 명심하십시오.

- 1)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끔찍한 죄를 짓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태도는 그들과 비슷했습니다. 2주 전 크리스토퍼 웨스트의 통찰력을 기억하십시오(<http://thejustmeasure.ca/2020/08/30/five-ways-god-expands-our-horizons/>). 그는 데이트 강간 사건을 엿들었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은 없었지만 여전히 여자를 성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양심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들의 선을 무시하는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 2) 우리가 확실히 더 잘 알고 있는 곳에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더 잘고 있었다면 왜 아직도 그것들을 하는 것일까요? 이 두가지 질문은 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저질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3) 아시시의 프란시스 성인에게 어떻게 자신을 가장 큰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 만약 하느님께서 가장 큰 죄인에게 그분께서 내게 베푼 호의를 베풀어 주셨더라면 나보다 훨씬 더 감사 들렸을 것이고, 그분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두셨더라면 나는 다른 죄인들 보다 더 큰 악행을 저질렀을 것이다”(<https://www.bartleby.com/210/10/041.html>)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은총과 얼마나 많은 것을 낭비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더 큰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하느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 4)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요점은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죄에 대해 하느님 아버지께 갚을 수 없지만,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용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이 우리에게 진 빚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느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분께서는 그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칠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저희에게 죄 지은이를 용서한 것과 같이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먼저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청원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CCC 2838).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교훈을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짓에 상처나 분노, 진노로 고통 받고 있다면, 나는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연습을 해 보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종이나 핸드폰에 여러분의 최악의 죄, 특히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는 죄, 가장 당황스러운 죄, 당신이 이것에 대해 울고 고백 성사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죄를 적어보십시오.

용서는 화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그들의죄에서 해방시킬 때입니다. 화해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일단 용서하면,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해친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그 관계를 다시 쌓을 기회를 달라고 하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 용서는 미래의 학대에 대해 망가지거나 정의를 간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공유할 비디오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의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이 4분짜리 비디오는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신성한 자비에 관한 것입니다. 르완다 출신의 이마쿨레 일리바지아라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우리 마음속의 분노와,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어떻게 자유를 찾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https://players.brightcove.net/802593642001/BF7mrlFFAd_default/index.html?videoId=6148447259001

21:53 to 26:17).